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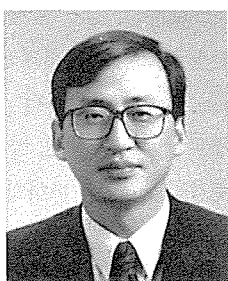
V 한국건축의 문제와 건축문화

획

특

집

**‘첨단기술’로 보는 사회적 인식 절실
기술적 차원 넘어 문화로 승화해야**



金光鉉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건물은 재산이자 公의 감상대상

건물이란 그것을 소유하지 않은 이에게는 감상의 대상이며 공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다. 그렇지만 건물을 소유한 이에게는 사적인 재산으로 작용한다. 이는 개인만이 아니라 공공단체에도 해당한다.

건축은 문자 그대로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제약도 역시 복잡하다. 대지를 구입하고 준공할 때까지 하나의 건축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수많은 법적인 절차와 경제적 계산이 개입하게 되어 있다. 다른 예술과는 달리 건축에 복잡한 건축관계법령이 있는 것은 건축에 대한 외적인 영향을 반영한다.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흔히

건축을 사회를 반영하는 예술이라고 한다. 사회의 공공적 성격을 떠나서는 건축은 성립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공적인 성격이란 건축의 특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면서, 동시에 건축의 본질을 침해하는 커다란 제약 조건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 주택인 경우는 건축주의 취향과 부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 공공단체나 정부가 시행하는 건축물인 경우는 각종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70년대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강조한 제3공화국 시대에 지어진 수많은 공공건물들은 전통문화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예가 그러하다.

나는 오늘날 우리나라 건축의 현실

과 그 문제점을 이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측면에서 다소 평이하나 근본적이라 생각되는 몇 가지 측면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이러한 관점이 하나 하나의 건축물을 열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가치있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건축이란 물질적이면서 정신적인 가치를 동시에 지닌 이율배반적인 산물이다. 일상적으로는 흔히 건축(architecture)을 건물(building)과 같은 것으로 사용하지만, 이 두 용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건물은 기능을 수용하는 구조물이라는 구체적인 사물만을 말하지만, 건축이란 그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예술과 과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건축’이란 말에는 추상적이며 정신적인 측면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지만 건축은 순수하게 정신적인 산물만은 아니다. 건축은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것이며, 가진 자의 문화적 생활을 표현하는 오브제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지역과 국가의 통치 이념을 표현하기도 하는 등 외적인 요인이 뒤얽혀 있는 공학이자 예술이다. 이처럼 건축은 외적인 한계를 가진 예술이다. 따라서 건축이 역사 안에서 공공의 예술로서 발전해 나가느냐 여부는 건축의 문화적인 가치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점차 나아지고는 있다 하나 일반적으로 건축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요원하다. 아직도 건축이란 그저 집을 짓는 행위일 따름이며,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부분의 경우 건축의 질이란 방수를 잘 해 주

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대학의 교수들까지도 건축과 토목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건설이라는 물량적 산업의 한 종류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회의 통념 아래에서는 건축을 예술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예술이란 일종의 정신적 여유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에 대한 문화의식은 주택과 그 안에 사는 이에게서 가장 잘 나타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건축잡지에 나타나는 우리의 주택 작품들은 문화로서의 주거의식을 반영한 예가 별로 없다. 이 시대의 주택이란 고작해야 서구풍의 공간 속에 안방도 놓고 사랑방도 놓은 것이다.

사이비 엘리트 취미로 고른 골동품 같은 것들이 제법 부유한 주택의 반들거리는 바닥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다. 사는 이의 주거의식과 그 물리적 장치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한 시대의 주택이란 결코 물리적인 재료로 둘러싸인 다섯 평, 열평의 방들의 조합이거나 값비싼 재료로 치장하며 자신의 부를 뽐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도시에는 생활의 생기를 잃은 무기적인 주택이 즐비한가 하면, 유럽 농가풍의 지붕을 덮고 있는 목가적인 풍경이 그 주택에 연출된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고,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 지어질 집이 신작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외관은 속 빈 강정같고, 벽과 기둥의 위치는 세련되어 있으며 부분 부분의 디테일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으나, 시대를 사는 이의 '생각'이 빠져 있는 무대 세트로만 보인다.

도시에 살면서도 동네의 환경과는 무관하게 담장을 치고, 그 안에 저 푸른 전원주택의 꿈을 실현하려는 것이 우리나라 주택 작품들의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주택이란 사는 이가 조용히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정신의 안식처'나 동네 환경에 대한 조화와는 거리가 멀다. 국적불명의 주거 문화, 이것이 우리의 주거 문화이다.

예술이 문화로서 인정받는 것은 만든 자의 직능을 이해하고 그의 생각을 공유하려 할 때이다. 그런데도 이 사회는 건축가를 건축가라고 부르지 않으며, 심지어는 언론은 건축가를 별 생각없이 '설계사'라고 부른다. 건축가란 그저 '설계를 업으로 하는 기사'일 따름이다.

실사 대규모의 공공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언론은 시공자의 이름을 다루어 주어도 정작 건축가의 이름을 다루지 않는다. 화가나 조각가의 이름은 당연하게 다루면서도, 도시의 얼굴을 만들어 가는 건축가의 이름은 저 뒷편에 물러나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을 문화로 여기지 않고, 물질적 생산의 하나로 본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사회가 건축가라는 고유한 직능을 이해하지 않는 한, 건축의 공공성이나 이와 관련된 문화로서의 건축이란 존재할 수 없다.

대규모건설 외국전문가에 맡겨

현대의 첨단 기술은 점차 소프트웨어이며 문화적 감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불과 5년이면 다가올 21세기에는 각종의 정보와 기술 그리고 생활이 '문화'로서 인식될 것이고, 국제화

시대라는 이름 아래에서 외국의 자본이 '문화'의 옷을 입고 침투해 들어오게 되어 있다.

국제화가 건축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화란 물리적이며 기술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신적이며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가온다는 데 있다. 더구나 이제부터는 '문화'란 70년대나 80년대처럼 사랑방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축적 상황이 국제적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복잡하게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건축이 21세기에서 제대로 살아 남으려면 이제까지와 같이 사회의 간접자본시설, 건설의 한 분야, 자본축적의 방편, 소비적 인테리어를 두고 생활의 지혜라고 치장하는 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건축을 첨단은 커녕 수준 낮은 로우 테크 정도로 여기고 있다. 이는 사회만이 아니라 건축가들 자신도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다. 건축의 생산 수단은 재래의 공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부실의 대명사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오래 전부터 건축을 '비첨단' 분야로 분류해 왔다. 이에 비해 이른바 '첨단'으로 분류되는 전자, 전기, 제어계측공학 등에는 실험실습비도 많이 배정되고, 갖가지 연구비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학생 증원만이 아니라 교수의 증원도 첨단공학 일변도이다. 이에 대해 건축은 종이만 쓰면 되며, 각종 실험을 하지 않는 학과로 여기고 있다.

또 '첨단공학'에 바탕을 둔 정책 기준을 가지고 건축과 토목을 부분적으로 합치라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을 거부하며 건축의 독자성을 주장하면, 이에 대해 대학이 주는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이렇게 비첨단 기술의 하나로 방치해 둔 건축의 현실의 한복판에서는 대규모의 건설 사업이 떨어지면 첨단 기술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의 기술진을 불러들인다. 대도시에 우뚝 선 대규모 고층 건물 중에는 외국 건축가가 설계한 것이 많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최근에 건설되고 있는 영종도 국제공항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대규모 국제공항을 설계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의 건축가가 설계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기술진이 대전 엑스포에서 인테리어의 많은 부분을 담당한 것도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건물을 해결할 이른바 '첨단기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구미의 첨단 건축설계와 기술은 상품이 되어 세계 시장에 유포되고 있다. 이제 세계화의 원년에 서서 한국의 건축 기술은 외국의 첨단 기술에 노출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지 건축설계의 부가치는 매우 높으므로 첨단 기술로 육성해야 한다는 단순논리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건축이 그저 아름다운 건물만을 만드는 데 머물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첨단화로 21세기 문화전쟁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할 분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에 대한 저급한 문화인식은 문화의 옷을 입고 나타날 서구의 첨단기술에 역으로 우리의 문화가 흡수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 뻔하다.

서구의 이론과 기술에 치우쳐

우리의 현대 건축이 일본인의 손을 거쳐 문화로서가 아니라 즉물적인 기술의 한 분야로 받아들여진 이래, 이 사회는 아직까지도 건축을 문화의 중요한 단면으로 여기는 데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이는 건축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건축가 자신도 건축을 문화로서 주장하기를 기피해 왔으며, 오히려 현실과 무관한 발상에 지나지 않음을 내면 깊숙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날의 한국 건축가들이 이러한 사정을 위기적인 상황으로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때 70년대에는 건축의 전통논쟁이 활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까지도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심지어는 건축에 있어서 전통 운운한다는 것 자체를 시대에 뒤떨어진 진부한 주제라고 여길 만큼, 과거에 있던 사건으로 단순화해 버린지 오래이다.

또한 80년대에는 모더니즘을 반형식적(反形式的)인 것으로 여기며 건축의 내적인 논리를 구축하려 한 포스트 모던 건축에 근거하여, 우리의 일천한 건축을 이론화하려 한 움직임도 저널리스트틱한 수준을 넘지 못한 채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 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상업의 소비문화와 함께 하며 표층만을 추구한 허구의 구도만을 남겼다.

이에 대해 오늘날에는 또 다른 흐름이 대두하고 있다. 세기말의 정보문화 속에서 가려졌던 의미의 부재(不在)를 그대로 드러내려 하는 이른바 '해체' 라는 이름의 건축에 동승하여,

본질과 질서와 참조 체계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며, 테크놀로지컬한 환영의 세계를 그리려 한다.

이렇게 개략적으로 살펴보아도, 한국의 현대건축은 서구의 이론적 성과와 그 결과만을 입수하여 이를 직선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고 문화적 사정이 변할 때마다, 단지 새롭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이론을 소비하여 왔다. 한국 현대건축이 서구의 '근대건축'과 대치하며 뚜렷한 주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외국의 이론과 설계를 모방하는 수준에서 공전을 거듭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한국건축의 특수한 주변 사정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근대건축의 연장선상에 있는 현대건축의 과제를 더욱 애매하게 만드는 것은, 한국의 건축가들이 자신의 과제를 이 문제에 두고 고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와 같은 문제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않거나 별로 대수롭게 않게 여긴다는 데 있다.

많은 건축에 대한 한국 건축가의 기본적인 태도는 외국의 건축가의 자세와 비교할 때 매우 특이하다. 한국의 건축가들은 모름지기 건축가란 '작품'으로 승부를 거는 작가이지 말하는 논객이 아님을 자부하고 있다. 또 그들은 자신의 '작품'을 각종의 번잡스러운 건축이론의 세계와는 아주 다른 곳에 위치하게 할 수 있는 연금술사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 그 결과 자신은 그 '작품'에 아무 말도 넣지 않았으면서도, 그 '작품'은 늘 이론의 사정권 밖에 존재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가의 태도는 '작품'을 폐쇄화하는 것이며, 타자(他者)와의 관계를 거부하는 왜곡된 건축의 자율성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서 보는 건축의 자율성이란 사유·화된 자율성이며 작품을 신화화하기 위한 통로일 뿐, 이데올로기와 연동하는 근대 초기의 아방가르드들의 자율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탓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의 자율성이란 건축가가 외적인 조건을 무시한 채, 홀로 작품에 몰두하기만 하는 예술지상주의자의 용어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들은 또 다른 통로를 가지고 있다. 즉 자신의 '작품'이란 사회적인 요구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수록 건축의 외적인 조건을 프로그램과 예산, 법규의 문제로 돌리려 한다. 이때 그들은 작품이란 현실의 반영물이며, 자신은 사회에의 충실한 봉사자가 된다. 그리고 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건축을 성립시키는 제1의 조건조차 무시하는 것으로 여긴다.

사회의 문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건축에서는 왜곡된 자율성을 통하여 건축의 외적인 현실에 침묵하고, 왜곡된 현실주의를 통하여 건축의 자율성을 침해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가의 문화 의식 아래에서는 현대건축의 새로운 주제를 독자적으로 발견해 가기가 어렵다.

건축은 우리가 사는 도시의 얼굴을 만들어내는 공공의 예술이다. 그러나 건축이란 공공건물이 아닌 이상, 일차적으로 개인의 사적 재산이다. 또 설사 공공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

치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하나는 사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성의 결여이며, 다른 하나는 건축의 이데올로기성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공공성의 결여이다. 이렇게 건축이란 본질적으로 공공의 예술이면서도, 그것이 성립하는 불가피한 바로 그 조건에 의해 건축은 공공성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

주택의 경우에도 개인이 영위하는 삶의 본질과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없이는, 그 주택이란 그저 단순한 개인의 재산일 뿐이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건물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공공을 위장한 정치의 상징물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극단에서 건축가가 내걸 수 있는 입장이란 물리적, 경제적, 기술적 해결자로서이다. 건축가는 더 이상 문화를 가꾸어내는 공공예술의 창조자로서 발언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건축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도시는 경직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교육제도는 악순환을 방관하며 비첨단의 기술 분야로 분류하게 된다.

문제는 건축에 대한 문화 의식이다. 경직된 건축물과 도시 속에서는 문화 의식에 길러질 수 없고, 이런 인식 속에서는 건축을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만 계산하게 된다.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이러한 순환 논리 속에서는 건축교육은 획일적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차라리 건축의 기술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시장성으로 보아 더 낫다는 관념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건축가

는 별다른 문화 의식을 개발하려 하지 않으며, 타자(他者)가 없는 관념의 세계에 자신의 건축 작품을 가두어 버리거나, 아니면 현실의 해결자로서 고립해 버리게 된다.

공공예술이란 만드는 자와 보는 자, 그 안에서 사는 자의 '문화' 의식이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특히 건축은 더욱 그러하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현대건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일반인이든 전문가이든, 교육이든 현장이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건축을 '문화'로 여기고 이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세계화의 문턱에서 있다. 바로 이 시점에 건축을 '문화'로 여기지 않는다면 문화의 옷을 입은 선진 각국의 건축설계 기술이 우리의 문화를 잠식해 올 것이다. 또한 건축가들은 건축을 문화로 해석하고 이를 이론화하지 않는다면, 건축의 건축성은 해체되고 말 것이다. 그것은 '문화'란 공공 예술로서의 건축이 해체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파제이기 때문이다. ①7

※ 바로잡습니다

- ① 지난 8월호 기획특집 I (삼림과 인간문화: 박태식) 내용중 48쪽 1단 9행 '학문상에'를 '공부(公簿)상에'로
- ② 50쪽 2단 17행 '목재가격은 1~4배 올랐을...'에서 '1~4'배를 '1.4'배로 정정합니다.